

뿐만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모라비안 창시자 진젠도르프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안한 새해를 시작할 때도, 지나간 헛된 소망과 의심과  
두려움의 세월을 넘어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얽히고설킨 삶의 미로 가  
운데서도, 아쉽고 서럽고 연짙은 날들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눌러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믿  
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삶의 장애와 어려움은 극복되기 위해 다가온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고전10:13). 앞이 어둡고 희망의 빛줄  
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을 믿고, 내 앞길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그분과 동행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건강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  
득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550장 (통248장).....	다	갈	이
주	기	도	문	.....	다
					갈
					이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설계를 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 예 배 순 서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 도 ..... 전 3:1-8 (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다 갈 이

찬 송 ..... 552장 (통358)..... 다 갈 이

성 시 교 독 ..... 다 갈 이

인도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다같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다같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다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 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 도 ..... 가 족 중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건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 친지들이 주안에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정을 이끄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1년 말씀대로 사는 가정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거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이 이뤄지는 한 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 멘-

성 경 봉 독 ..... 창 1:1-5..... 인 도 자  
(교독가봉)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 씀 .....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새해..... 인 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장에 나오는 처음 말씀은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온 오늘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창세기1장 2절의 상황처럼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